

베트남 유기농 전환에, 韓 ‘비료·농약’ 등 수출길 넓힌다

농식품부, 호치민 시장개척단 파견 현지 인증절차 상세 점검 등 예정 국내기업 15개사 일대일 매칭 상담

정부가 농기자재 업계의 동남아 시장 판로 확보를 지원한다. 우선 한국산 유기질 비료와 농약 등의 수입을 최근 크게 늘린 베트남에 시장개척단을 보내,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현지 인증절차·규제 등의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26일부터 31일까지 국내 농기자재 수출기업으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을 베트남 호치민에 파견한다고 25일 밝혔다. 한국의 우수한 농기자재 제품을 홍보해 수출시장 개척을 돕는다는 전략이다.

총 15개 업체의 참가가 예정돼 있다. 유니텍바이오산업, 효성오앤비(주), (주)남보, (주)무계바이오농업회사법인, (주)아미노 등 비료부문 5개사, 새틴바이오텍(주), (주)세어그린 등 친환경농자재 2개사, (주)엠에스, 기가테라라이팅, (주)유비엔, 병주농자재 등 시설자재 4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5월23일 충북 충주의 한 논에서 ‘자율주행 이앙기’로 모내기를 하고 있다. 이 농기계는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됐다. /뉴시스

사, (주)소마, 시그널케어 등 사료 2개사, (주)장자동화, (주)하다 등 농기계 2개사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8년 이후 농기자

재 수출 기업에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자 수출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매년 1개국 이상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왔다. 현지 정부 면담, 수

출상담회 및 현지 시장조사 등을 지원 중이다.

베트남 시장 농기자재 수출액은 10억 2000만 달러(2023년)로, 지난해 글로벌 경기 악화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비료와 농약 등의 수출이 상승세를 보이며 전년대비 수출이 33% 증가했다.

베트남 정부는 유기농 전환 정책 방향에 따라 농업인에게 농업생산 시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도록 홍보 권장하고 있다. 이에 유기질 비료, 생물비료로의 전환 등 베트남 현지 트렌드와 구매업체(바이어) 관심도 등을 반영해 시장개척단 참여기업을 꾸렸다.

오는 27일 현지에서 베트남의 유망 구매업체(바이어) 30개사와 국내기업 15개사를 일대일 매칭해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국내기업이 상담회에서 수출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베트남 시장 동향과 해외 구매업체(바이어) 상담 전략, 수출 성공 사례 등을 사전에 교육(8월14일)한 바 있다. 또 베트남측 바이

어 30개사를 개별 인터뷰해, 각 바이어가 요구하는 서류와 내용 등 준비가 필요한 사항을 파악해 참가기업에 사전 공유했다.

28일에는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를 방문해 현지 농업 현황과 관련 정책 파악에 나선다. 또 정부 지정 인증기관을 찾아 품목별 수입 통관 절차 등 농기자재 인증과 관련한 규정과 세부 내용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베트남 수출 제품의 등록 및 인허가 등의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하반기에도 농산품 수출상담회(2회)와 해외 박람회에 한국 기업관(4회)을 운영하는 등 농기자재 수출 확대를 위한 판로개척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해외 박람회, 바이어 매칭 수출상담회 등 판로개척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예산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칭다오 현지 유통망과 韓 소비재 수출 확대

산업부-코트라, ‘K-굿즈 워크’ 개최 식품·화장품 등 44개사 441개 제품

중국 칭다오에서 현지 유통망과 우리 기업이 함께하는 한국 소비재 홍보 행사가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KOTRA)는 24일부터 내달 1일까지 9일간 중국 칭다오 리다광장에서 ‘K-굿즈 워크’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현지 대표 유통방인 리다그룹과 협업체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국 소비재를 홍보하고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관측 행사는 유입 관광객이 많은 8월 휴가철을 겨냥해 ‘칭다오에서 체험하는 한국’을 테마로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의류 등 44개사의 441개 제품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트라가 8월 24일 ~ 9월 1일까지 중국 칭다오 리다광장에서 ‘K-굿즈 워크’를 개최한다. 사진은 24일 행사장 현장 모습. /코트라

을 판매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중

국법인 칭다오aT물류유한공사, 수협중앙회 칭다오무역지원센터와 협업해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시식회와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현장에서는 중국 소비자 선호도가 꾸준히 높은 라면, 김자반 시식회를 비롯해 게맛살, 아몬드 스낵 등 간식류 제품의 SNS 인증 이벤트도 진행한다. 또 저자극 어린이용 로션 등 프리미엄 제품 선호도가 높은 영유아용품 체험존도 운영된다.

김윤희 코트라 칭다오무역관장은 “칭다오는 한국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 때문에 한국 문화와 소비재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 소비재 기업이 중국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먹는샘물·정수기’ 안전관리 강화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개정안 입법

정부는 먹는샘물의 수입 및 유통 판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수기 위생 관리와 자가 품질 검사 시점도 명확히 해 소비자 보호에 힘쓸 예정이다.

환경부는 먹는샘물 및 정수기 관리 강화를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먹는샘물 수입 및 유통판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을 등록하고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원수수질검사서를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한해 수입되는 먹는샘물의 원수 관리를 강화했다.

먹는샘물 수입 또는 유통하는 업체에

서도 먹는샘물 제조업체 수준으로 관리를 받는다. 먹는샘물 수입 및 유통판매업에 대한 작업일지 보관기관이 현행 1년에서 먹는샘물 제조업체와 동일하게 3년으로 상향됐다.

먹는샘물 수질 기준이 초과할 경우 제품을 수거 또는 폐기하고 ‘시도지사(관할 지자체)’에 보고하는 의무를 ‘먹는샘물 제조업체’에만 부과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은 ‘먹는샘물 수입 및 유통판매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정수기 위생관리 강화 및 자가품질검사 주기도 합리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냉온수기 및 정수기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장실 등 오염시설과 가까운 장소에 기기 설치를 금지하고,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수시로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김대환 기자 kdh@

인천-전남 ‘소 사육’ 거점 방역강화... 렘피스킨병 확산 방지

정부, 9개 시·군·서해안 항만 점검 농림축산식품부 등 합동 점검반 편성

인천에서 전남에 이르기까지 국내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렘피스킨병 방역 실태 점검이 약 2주간 실시된다. 각 지역의 소 사육 거점 시·군인 인천 강화와 경기 안성, 이천, 용인, 오산, 충북 진천, 충남 천안, 전북 익산, 전남 영암 등 9곳이 대상이다. 또 서해안 지역 항만 9곳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렘피스킨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는 최근 경기 안성 한우농장에서 렘피스킨병(LSD)이 발생함에 따라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방역관리 정부 합동 점검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추가 발생·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해

와 올해 발생 및 인접 지역 등 9개 시·군과 서해안 소재 9개 항만을 집중 점검한다. 항만은 경인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태안항, 보령항, 장항항, 군산항, 목포항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시도 합동으로 점검반(8개반 32명)을 편성해 재발 방지 방역 관리와 농가의 차단방역 전반에 대해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해외로부터 렘피스킨 매개곤충 유입이 우려되는 서해안 소재 및 사료 원료가 수입되는 항만에 대한 전문방제업체의 방제 추진 실태도 함께 점검한다.

백신접종 관리를 비롯해 송아지 등 접종유예 개체 관리, 접종기록 입력 등 사후관리, 재난·보건 부서와의 공조, 긴

급방역비 집행, 매개곤충 방제 등을 살펴본다. 미흡 사항은 즉시 개선·보완하도록 하고,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방침이다. 항만에 대해서는 전문방제업체의 방제 구역, 방법, 주기 등 방제 절차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렘피스킨 방역대책본부는 추가 발생 차단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발생 및 인접 지역 6개 시군의 사육 소 21만두에 대해 긴급 백신접종을 완료했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렘피스킨은 주로 매개곤충을 통해 전파되는 특성상 농장에서 침파리, 모기 등 흡혈 해충을 방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대학 졸업·성적증명서 발급 담합 3사 제재

공정위, 아이애텍 등 11.6억 과징금

대학 졸업증이나 성적증명서 발급 대행 사업자들이 7년여간 대행수수료와 증명발급기 가격과 상호 거래처 영업 금지 등 담합을 벌이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대학(교) 증명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애텍, 한국정보인증(옛 디지털존), 씨아이테크 등 3개 사업자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억 6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대학들은 재학생·졸업생 등에게 졸업장 등 증명발급 서비스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는데, 온라인 서비스는 주로 이들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중

명발급 사이트를 통해 대행 발급하는 방식이다. 오프라인 발급서비스는 사업자로부터 대학이 구매한 증명발급기(키오스크)를 통해 발급한다.

이 사건 담합에 가담한 3개 사업자는 2015년 4월 ~ 2022년 5월까지 약 7년간 서로 가격과 영업 경쟁을 방지하고 수익성을 보호할 목적으로 인터넷 증명발급 대행수수료를 최저 1000원(추가 통당 500원)으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대학 증명발급 서비스는 취업 등과 관련해 많은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인데, 이 사건 담합은 사업자 간 가격 경쟁과 기술 혁신 등을 제한해 대학의 재정을 낭비시키고, 취업준비생 등 국민들의 수수료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